

미국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정책

이재흥 (노동부, 미국 오레곤주 고용국 객원연구원)

■ 서론 : 논의 및 진행 상황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 한 시간 분량이면 전 세계 인구가 1년간 사용하고도 남는다”(Van Jones, 2008)¹⁾.

미국 정부가 ‘녹색’(Green)에 미래를 걸고 있다. 언론이나 각종 보고서 등에는 녹색의 접두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녹색일자리는 물론이고, 녹색비즈니스, 녹색산업, 녹색사업주, 녹색 근로자, 녹색고용, 녹색교육, 녹색훈련 등, 녹색이 붙은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용어뿐 아니라 실제 정부정책도 과감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오히려 녹색산업을 일으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2009년 2월의 경기회복법(ARRA)에 의거 7,98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클린에너지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에만 약 900억 달러(한화 100조~110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CEA, 2010). 2010년 한국 정부 예산이 약 293조 원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Van Jones (2008)의 저서, *The Green Collar Economy*에서 인용. “Enough solar energy falls on the Earth's surface in one hour to power all of human civilization”. Van Jones는 환경운동가, 법률가로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녹색일자리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미래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석유 의존으로부터의 탈피,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 녹색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즉 고용 없는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 지원과 그린 인력양성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환경청, 주택부, 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력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노동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부는 녹색훈련과 녹색일자리의 개념과 관련한 통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노동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미 노동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녹색일자리 사업의 추진경위, 정책의 프레임워크, 통계 및 훈련 공모 사업 등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녹색훈련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의 사업 추진에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각 사업내용과 선정된 사례 등을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다.

■ 미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동향 : 경기회복법(ARRA)과 녹색일자리

녹색일자리 정책은 크게 에너지와 환경 두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의 정책은 주로 에너지 분야가 중심이다. 즉,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RE)와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EE)이 핵심 분야이다. 여기서는 ARRA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클린 에너지분야의 재정투입 동향과 이로 인한 녹색일자리 창출 성과와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 투입 동향

앞서 언급한 900억 달러의 녹색 및 클린에너지 관련 예산은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이 약 70%(607억 달러), 조세를 통한 지원이 약 30%(295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표 1〉 부처별 녹색일자리 예산 및 지출 현황

	예산 (2009년 4분기 ~ 2010년 1분기, 단위(백만 달러))		
	총예산	지출 예정*(2009년 4/4-2010년 1/4)	기지출(2009년 4/4-2010년1/4)
상무부	6	3	0
국방부	922	512	101
에너지부	35,235	20,108	1,331
환경청	300	296	61
행정관리청	4,800	3,549	505
주택부	850	623	144
노동부	500	476	195
교통부	17,968	9,967	2,644
국립과학재단	77	68	7
내무부	41	18	3
조세	29,523	4,134	4,134
총예산	90,222	39,754	9,127

주 : 지출 예정은 계약 등을 통해 이미 예산이 지출되기로 결정된 사업을 의미함.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가 266억 달러(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로 199억 달러(약 22%)의 순이다. 그리고 에너지 연구 및 훈련 사업에도 35억 달러(약 4%)의 예산이 집행되거나 집행될 예정이다.

이를 부처별 예산으로 보면 에너지부(39%), 교통부(20%) 등의 순이며, 노동부가 5억 달러의 예산으로(약1.5%) 직업훈련과 녹색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표 1>은 부처별로 본 클린에너지 관련 정책 예산 규모 및 집행 동향이다. <표 1>을 보면 미국 정부도 우리의 재정집행 상황점검 회의처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현황과 녹색일자리 창출 동향을 매 분기 별로 백악관을 중심으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동향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일자리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500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ARRA법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면 2009년 4/4분기부터 2010년 1/4분기의 6개월간 약 10만 4,000개의 총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ARRA 예산 집행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로서 직접 및 간접, 그리고 유발된(induced) 일자리를 모두 포함한 일자리이다²⁾(U.S. CEA, 2010).

〈표 2〉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전망

	창출된 일자리 (2009년 4분기 ~ 2010년1분기)		2012년까지 전망
	총 일자리	Clean Jobs	
일자리 수	104, 100	83,300	719,600

■ 미 노동부와 녹색일자리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2009년 이후 미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일자리 사업은 통계 사업과 훈련 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계 사업의 경우 노동통계국(BLS)을 중심으로, 훈련 사업은 고용정책실(ETA)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여기서 Green Jobs와 Clean Energy Jobs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Green 일자리 창출은 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 Clean energy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직접적 일자리(direct jobs) : 정부나 경기회복보조금에 의해 직접 채용된 일자리로 클린에너지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
- 간접적 일자리(indirect jobs) : 경기회복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재하청업체 또는 동 사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채용된 일자리. 클린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동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 유발 일자리(induced jobs) : 에너지 분야에 직·간접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소비지출로 유발되는 일자리.

〈 표 3〉 미 노동부 녹색일자리 사업 개요

사업	주요 내용 (주관 기관)	예산 규모
통계 사업	녹색일자리 통계 수집, 분석 등 (BLS)	8백만 달러
	녹색일자리 통계 수집·분석 등 (지역통계, ETA)	5천만 달러
훈련 사업	취약계층 등 녹색일자리 훈련사업 (ETA)	4억 5천 달러
	녹색 혁신 펀드(Green Innovation Fund) (ETA)	4천만 달러
부대 사업	캠페인, 온라인 공동체 구축 사업 등 (노동부 전체)	

미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일자리 사업의 주된 예산은 경기회복법에 의거 편성된 예산 (5억 달러)으로 2007년 12월에 제정된 녹색일자리법(Green Jobs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가 2009년 2월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 경기회복법 예산을 편성 하면서 반영되게 되었다.

〈 녹색일자리 법(Green Jobs Act)³⁾ 〉

• 경위

- 2007년 12월에 에너지법의 일환으로 제정(Energy Security and Independence Act)되면서 인력투자법(WIA)에 반영. 그러나 당시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가 ARRA법이 제정되면서 경기회복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다. 특히 동 법은 현 노동부 장관이 하원의원으로 재직시 제안한 법안이기도 하다.

• 배경

- 경제와 환경이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이라는 인식 제고
 - 환경 문제가 일부 엘리트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전 국민적 과제이며, 저소득층 훈련 등을 통해 새로이 성장하는 그린산업에 대한 성장 기반도 강화

• 주요 내용

- 연방정부는 매년 환경친화적인 분야에 약 35천 명(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직업훈련 등을 실시

3) 자료 : <http://www.greenforall.org/>, <http://www.greenforall.org/files/faq-greenjobsact07.pdf>.

(2,000만 달러: 저소득층 훈련, 8,000만 달러 : 향상훈련 등, 2,500만 달러 :연구)

• 의의

- 환경과 사회정책을 연계하는 최초의 법률

녹색일자리와 통계(미 노동통계국 BLS 동향)⁴⁾

녹색일자리는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나 자연보존과 관련되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로 독립된 산업이나 직종이라기보다는 여러 산업이나 직종에 걸쳐 있다 보니 특정 산업이나 직종의 녹색성(Green-ness)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일자리가 오바마 정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국정 과제로서 정부, 학계, 노사 등의 초미의 관심 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표준산업분류(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NAICS)나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 SOC)로는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관련 통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사업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녹색직업 등에 대한 정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는 오래곤에서는 특정 일자리의 녹색성(Green-ness)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에 등록된 일자리가 녹색일자리인지 여부를 (auto-code화 작업을 통해)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2010년부터 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부, 상무부, 노동부(고용실, ETA)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한 일자리에 대한 통계수집 및 생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Box의 내용과 같다.

4) 자료 : <http://www.bls.gov/green>.

〈 노동통계국 녹색일자리 통계구축 사업⁵⁾〉

• 목표

- 녹색일자리의 고용량과 향후 전망, 녹색고용의 추세 파악
- 녹색일자리에 대한 산업별 · 직업별 · 지역별 분포 파악
- 녹색일자리에 대한 임금수준 파악 등

• 추진 상황

- BLS 및 주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Green Jobs Study Group' 을 만들어 녹색일자리 통계 관련 내부 검토 진행(2009년 ~)
- 녹색일자리 통계 작업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연방관보, 2010, 3. 16)
- 녹색산업생산 및 일자리에 대한 사업주 조사 예정(QCEW 조사)⁶⁾
- BLS 조사 결과에 따른 최초의 녹색일자리 통계는 2012년에 나올 예정

녹색일자리 공모 사업

미 노동부(ETA)는 2009년 6월 24일부터 5억 달러의 예산으로 주정부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경쟁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사업 내용은 주로 훈련 사업이 중심이며, 사업별로 선정 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가지 사업에 대해 총 189개의 참여기관을 최종적으로 심사 · 선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Box는 미 노동부에서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5가지의 Green Job 훈련관련 보조금 사업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⁷⁾. 우리의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미 공모 사업의 절차와 내용, 선정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붙임 1 참조).

- 5) 향후 노동통계국(BLS)의 조사가 완료되면 녹색경제활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 파악, 구인 · 구직 관련 녹색일자리 정보 제공, 녹색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직업능력, 교육 · 훈련과정 확인, 녹색일자리 경력개발, 자격증 기준마련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은 물론 학계나 교육훈련기관, 학생, 구직자 및 사업자 등 경제활동 주체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QCEW : 사업장 조사로 산업별 고용 · 임금이 관한 통계조사
- 7) 5가지 사업을 시기순으로 기술. 보다 상세한 자료는 <http://www.doleta.gov>에서 보조금 사업부문을 참고.

〈 미 노동부 녹색일자리 공모 사업 개요 ⁸⁾ 〉

추진일정 (공고-선정)	사업 개요(사업명 및 주요 내용)	주요지원 기관	예산
2009. 6. 24 → 2009.11.22	- 사업 : 노동시장정보(LMI) 향상 보조금 - 내용 : 통계수집 및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주정부	48,8백만 달러
	- 사업 : Green역량 구축지원 사업 - 내용 : 미노동성 훈련사업 참여기관 훈련역량지원	민간	5.8백만 달러
2009. 6. 24 → 2010. 1. 6	- 사업 : 에너지 파트너십 훈련 - 내용 : 실직자, 여성 등 훈련지원	민간	1억 달러
2009. 6. 24 → 2010. 1. 13	- 사업 : 빈곤탈피지원 보조금 - 내용 : 빈곤 지역의 취약계층 훈련 및 취업지원	민간	1.5억 달러
2009. 6. 24 → 2010. 1. 20	- 사업 : 에너지섹터 파트너십 및 훈련지원 - 내용 : 산업별 파트너십 촉진 및 훈련지원	주정부 (WIB)	1.9억 달러

미 노동부 공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 사업 기술에 앞서 미국의 고용정책사업 공모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절차를 기술하였다⁹⁾.

공모 절차(Solicitation for Grant Process)

고용·훈련실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상세한 내용은 모두 사업 공고(SGA, Solicitation for Grant Application)에서 설명되며, 동 공고는 노동부의 홈페이지, 정부의 보조금 사이트¹⁰⁾ 및 연방 정부의 관보(연방공고, Federal Register)에 기재된다. 통상 준비 기간은 45~60일 정도 부여한다.

8) 이외 제대군인을 위한 Green 훈련지원사업도 2009년(7,500만 달러), 2010년(200만 달러) 규모로 추진 중이나 여기서는 생략.

9) 자료 : <http://www.doleta.gov/grants/applyinggrants.cfm>

10) E-grants : 미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에서 신청서 접수에 이르기 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국민들에 제공(<http://www.grants.gov>). 이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2002년부터 운영중.

① 공모의 특징 및 강조점

대부분 사업효과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해 컨소시엄이나 파트너십이 강조되며,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응 투자는 필수조건은 아니나 이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② 보조 사업 평가 및 관리

- 사업효과 평가시 보조 사업자는 평가협조 의무(모든사업은 평가 실시)
- 보조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산 사용 및 사업진행 상황 보고
- 보조 사업 관련 기록은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보존
- 행정관리비는 통상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심사 및 선정 절차

- 검토평가단(review panel)을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 및 평가
- 보조금 담당관은 이를 참고하여 필요시 신청자와 일부 내용의 보완 및 지원금액 조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행하며, 협의 후 상호 합의되면 최종 선정 여부 결정.

〈 미 노동부 고용·훈련실 보조금 종류 〉

- 공식 보조금(Formulae) : 법에서 정한 기준(인구, 실업률, 1인당 소득 등)에 따라 지원되는 일종의 법정지원금(경쟁방식이 아님).
* 예시 :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성인, 실직자, 청년 사업 등
- 공모제 사업 (Competitive grant) : 신청·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하며, 우리의 공모제 사업과 절차가 유사하다(녹색일자리사업, WIRED 사업 등)
- NEG(국가긴급보조금) : 이외에도 대량해고나 재난 등의 특별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직근로자들을 위해 주정부에 지원 가능

기타 관련 주요 동향

앞서 기술한 공모 사업 외에도 녹색일자리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고용정책실(ETA) 외의 다른 사업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참고할 만한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녹색일자리 온라인 공동체(CoP)

녹색일자리 사업은 신규 사업인 동시에 아직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미 노동부 고용실(ETA)에서는 Green Jobs ‘Community of Practice’ (CoP)라는 온라인 공동체 사이트를 출범시켜 초기 단계에 있는 녹색일자리 사업의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정책정보 전달 및 사업 참여자 간의 우수사례 등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소통 등을 지원하고 있다.

〈 CoP 녹색일자리 온라인 공동체 〉

- 사이트 주소 : <http://greenjobs.workforce3one.org>
- 주요 내용
 - (정보제공) 정부의 녹색일자리 관련 정책정보 등 전달 및 기술적 지원
 - (토론 및 공유) 현장 경험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공유 및 토론
- 특징
 -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자 간의 쌍방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체 (webinar, blog, 토론장 등으로 활용)
 - 보조금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 녹색 인력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커뮤니티로 운영

녹색일자리 캠페인 (green2gold)¹¹⁾

미 노동부에서는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의 우수사례 모집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1) 참고 : <http://www.dol.gov/dol/green/greengoldsafe.htm>

‘green2gold’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친환경적이면서 녹색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기업이나 기관(공공기관 포함)을 추천받아 선발 예정이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기업의 사업이나 조치가 어떻게 기후 및 환경 친화적이었는지
- 또한 위의 조치가 어떻게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
-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어떻게 이 같은 변화를 이룩하였는지

노동부 장관 Web-chat ¹²⁾

제40회 지구의 날을 맞아 2010년 4월 22일 녹색일자리 관련 훈련을 받고 있는 Job Corps¹³⁾ 학생들과 인터넷상으로 노동부 장관이 직접 대화와 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web을 통해 학생들이 질문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녹색일자리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격려는 물론 대국민 소통 노력의 일환이다. 미 노동부는 2010년 2월에는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장관과 국민들이 web을 통한 토론을 개최하는 등 장관이 직접 다양한 형태로 대국민 소통 노력을 하는 것도 특징이다.

범부처적인 녹색일자리 정책 추진

주무부서인 고용정책실 외에도 다른 실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녹색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사업 발굴 노력을 하고 있어 소개한다.

- ① 건물그린화 : 미 정부는 모든 연방정부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개보수 작업을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도 마찬가지이다. 특징적인 것은 동

12) 토론 자료 및 내용 : <http://www.dol.gov/dol/green/chat-earthday2010.htm>

13)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 123개의 센터가 있다. Jobs Corps 사업은 16~24세 사이의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약 6만 명 정도를 훈련시키며, 전체의 75%가 고교 중퇴자이다. 2010년 노동부 내 동 사업 예산은 약 15억 달러 규모.

사업 추진에 미국 전역의 Job Corps centers program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여성국 : 여성 녹색일자리(Green Job for Women)¹⁴⁾의 일환으로 그동안 3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녹색일자리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여성을 위한 미국 전역에서 9개의 직업훈련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여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가이드 “A Woman’s Guide to Green Jobs”를 2010년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가이드에는 Green Jobs의 정의, 여성 적합 이유, 그린창업, 교육과 훈련, 그린 경력개발, 성공사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Public Policy Associates, Inc 등과 용역 계약).

③ 산업안전 :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텍사스 주립공업대학(Technical College, 풍력 분야에서 미국 내 가장 많은 교과 프로그램 운영)와 풍력에너지 산업에서의 산업안전 분야 협력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건설 분야에서의 그린일자리 산업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포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 결론 : 의견 및 시사점

정부의 과감한 투자

우선 미국 정부의 녹색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상당하다.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클린 에너지 분야에 투입하여 미래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 녹색일자리를 희망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도 녹색경쟁의 대열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14) 자료 : <http://www.dol.gov/wb/media/Greenhome.htm>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매우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다. 노동부의 경우에도 ARRA법 이후 신속한 공모 사업 예산집행, 통계 인프라 구축 사업, 연방과 주정부 간의 협력, 노동부내의 각 실국의 녹색일자리 관련 정책개발 노력 등을 보면서 미국의 녹색일자리 정책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 인프라의 구축 절차나 이의 전문적인 내용, 공모 사업에서의 심사평가 기준, 선정된 우수사례의 사업 내용, 범부처적 정책개발 등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판단된다.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

미국이 국토가 넓다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매우 활발한 것이 특징으로 보였다. 녹색일자리 정책과 같이 새로이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나 내용은 사업별로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동영상 형태로 자료 제공은 물론 상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 고객뿐 아니라 노동부의 업무 추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 노동부 고용실(ETA)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통 및 공감대의 확산

아울러 장관과 실·국장급 간부들이 직접 web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특히 녹색일자리와 같은 신규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Jobs Corps 학생들을 미 노동부 건물의 그린화 작업에 참여시킨다거나, 이들과 노동부 장관이 직접 web을 통한 대화를 실시하는 것 등도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창의적인 접근이라는 생각도 든다.

< 붙임 1 > 녹색일자리 공모 사업별 내용 및 사례

1. 노동시장 정보개선 보조금 (Labor Market Information Improvement grants)

□ 사업 개요 ¹⁵⁾

동 사업은 미 노동통계국(BLS)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통계조사 작업과 병행하여 지역(주)단위에서 지역의 녹색일자리 노동시장 통계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격상 지원대상은 지역의 노동통계를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 추진 배경

- 녹색산업 분야의 리서치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 녹색산업에서의 경력 발굴 및 취업알선 인프라를 강화하여, 주정부의 녹색산업 인력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사업 내용

- 녹색산업 및 직종, 이에 필요한 기술 요건에 대한 통계의 수집과 측정방법, 녹색기술이 산업과 직업 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결과 전파 및 공유(학교, 훈련기관, 구직자, 정부, 산업계 등)
- 녹색산업 관련 규제업무지원, 자격증 연구 등 관련 연구의 촉진
- 녹색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의 인식 제고 및 온라인 구인·구직 활성화 방안(구직자들이 알기 쉽도록 온라인에 등재하는 방안, 훈련 후 녹색일자리 은행(Green Job bank)과 연계하는 방안 등)

○ 총 예산 규모 : 4,880만 달러

○ 신청기관 요건 등

- 주정부 인력개발 담당기관(개별 또는 주정부 간의 컨소시엄)
- 비용 부담 및 매칭펀드는 조건은 아니나 연계가능 재원 장려

15) 자료 : 미 노동부 보조금사업 공고·고시 (Federal Register / Vol. 74, No. 120 / Wednesday, June 24, 2009 / Notices,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Notice of Availability of Funds and Solicitation for Grant Applications for State Labor Market Information Improvement Grants)

- 파트너십 : 주정부의 관련기관 및 노사단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장려
- 사업추진 기간 : 사업 착수 후 18개월 이내에 완료
- 신청서 제출 : 서류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주별로 75~125만 달러, 주정부 간 컨소시엄(200만 ~ 400만 달러)
 - * 인터넷(webinar)을 통해 동영상으로 사업 안내 및 설명 자료를 제공¹⁶⁾
- 사업 관리 : 매분기별로 예산 및 사업추진 상황보고
- 심사 ·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총 100점)
사업의 필요성 (Statement of Need)	15점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관 역량	15점
추진 전략 및 사업수행 계획	35점
산출물 및 활용전략 등	35점

□ 심사 결과 및 사례 소개: 컨소시엄 사례

사업 공고에서 최종심사 결과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¹⁷⁾, 심사 결과 6개의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당 76만 ~ 400만 달러를 지원함. 아래는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사업중 한 개를 소개

- 사례 :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등 3개 주가 컨소시엄 신청
- 금액 : 400만 달러
- 사업 내용 : 3개 주가 공동으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노사와 실직근로자들에 대해 그린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활동 총괄

16) 사이트 : <http://www.workforce3one.org>. 동 사이트는 미 노동부 고용정책실(ETA)에서 지원 · 운영하는 인력개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로 미 노동성의 고용 · 훈련관련 정책 정보제공 및 상호 토론 등 전국의 인력개발 업무 관계자 간의 중요한 정책정보 전달 및 소통수단이다.

17) 공고(2009. 6. 24), 접수 마감(2009. 8. 14), 선정 발표(2009. 11. 22)

- 주요 연구 분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및 녹색산업 전환 연구)
 -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기술 및 필요요소들 확인 등
 - 공급체인(Supply Chain) 전환 : 자동차 관련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새로운 수요와 기술을 무엇인지 등 연구
 - 전직지원 연구 : 자동차 업종 실직근로자들이 그린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 경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
 - 기술분석 : 자동차 인력의 현재 기술과 요구되는 기술 간의 격차, 그린 직종으로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훈련 연구

2. Green 역량 구축 보조금(Green Capacity Building grants)

□ 사업 개요

미 노동부의 기존 인력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행하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훈련예산 지원을 통해 녹색일자리 분야에 대한 훈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 추진 배경 : 동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은 그린산업이나 직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배양. 참가기관들은 장비, 직원 채용, 교과과정 개발, 파트너십 구축 등에 지원금 사용 가능.

○ 사업 내용 (proposal 포함 내용)

: 주로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한 그린훈련(청소년, 농장근로자, 인디안, 여성 등)

- 총 예산 규모 : 5만 8,000달러
- 사업 기간 : 사업 착수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
- 지원 금액 : 기관당 5만 ~10만 달러 내외
- 심사 · 평가기준

평가 기준	점수(총 100점)
역량 강화의 필요성 논거	20점
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65점
기관 역량	10점
산출물 및 실행 가능성	15점

□ 심사 결과 및 사례 소개 : 캘리포니아주 사례

심사 결과 28개 주의 62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로 42천 달러~100천 달러까지 지원키로 함. 아래는 캘리포니아 주의 선정 사례를 소개

- 선정 기관 : Sonoma County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 금액 : 85,910달러
- 특징 : 지역의 폐교된 고등학교 시설을 녹색훈련을 위한 직업학교로 전환하여 활용
- 산출물 (사업 성과)
 - 사용하지 않는 빈 고등학교를 직업훈련학교 시설로 전환함으로써(태양광 설치, 에너지효율 주택, 에너지평가 시스템 등) 그린산업 분야 직업학교를 보유
 - 이를 통해 새로운 태양에너지 교과과정 등을 마련하고 학교 교실 개보수, 실험실 등도 보유하여 지역주민의 훈련 접근성을 제고

3. 에너지 훈련파트너십 보조금(Energy Training Partnership Training grants)

□ 사업 개요

동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린분야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는 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추진 배경 :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녹색 직종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보조금 (총 사업비중 2,800만 달러는 자동차산업으로 구조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사업을 지원).
- 사업 내용 : 주로 실직자, 여성, 흑인, 라틴계 등의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훈련 실시.
-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의 재직근로자 및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녹색산업 관련 분야의 노사 및 교육기관 등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수요를 반영하여 녹색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 자격증, 도제제도 및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입안 및 추진을 지원.
- 총 예산 규모 : 1억 달러

- 지원 기관 : 비영리 민간기관 중 아래의 두 가지 유형¹⁸⁾
 - 전국적인 노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를 가진 경우
 - 주 또는 지역 단위의 비영리기관 간의 파트너십

○ 심사 ·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총 100점)
사업의 필요성	15점
프로젝트 관리 및 기관 역량	15점
추진 전략 및 사업실행 계획	50점
산출물 및 활용전략 등	15점
평가의 적정성	5점

□ 심사 결과 및 사례 소개 ¹⁹⁾

사업 공고에서 최종심사 결과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심사 결과(180개의 신청기관 중) 25개를 선정하고 각 사업당 140만 ~ 500만 달러까지 지원하였다.

- 선정 기관(Grantee) : 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 (UWUA), AFLCIO
- 사업 지역 : 뉴저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3개 주(12개 카운티)
 - * 자동차산업 피해지역 : 뉴저지 및 캘리포니아 주의 3개 카운티
- 중점 산업 : E에너지효율제고 및 클린에너지
- 타깃 그룹 : 여성, 청년, 재직근로자, 실직자 등
- 보조금(주체) : 전국 보조금
- 지원금 : 4,993,922달러
- 참여 기관 (주요 파트너십) : 노조, 교육기관, 지역 인력투자위원회 등 관련 기관 등이 파트너십으로 참여

18) 동 사업과 빈곤탈피 지원사업의 경우, 훈련대상이 유사하여 둘 중 한 곳만 신청토록 하였다.

19) 공고(2009. 6. 24), 접수 마감(2009. 9. 4), 선정 발표(2010. 1. 6)

- 사업 내용 (“Green Skills = Green Jobs” 프로젝트)
 - 실직자 등 타깃그룹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물 등 유틸리티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신규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 아울러 참가자들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제제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사전 교육 및 훈련에 참가 예정
- 기대효과
 - 동 사업을 통해 약 672명의 참가자들이 훈련을 받고 유틸리티 직종에 취업할 예정
 - 또한 선정 기관은 유틸리티 분야의 도제제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참여하는 3개 주에 보급하여 동 분야의 근로자 경력개발 경로로 활용할 예정

4. 빈곤탈피지원 보조금(Pathways Out of Poverty grants)

□ 사업 개요

동 사업 역시 주로 취약계층의 그린분야 훈련지원과 함께 사업의 일부는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사업

- 추진 배경
 - 경제위기로 특히 빈곤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훈련과 취업지원을 빈곤 탈출 지원
- 사업 내용
 - 서비스 : 녹색산업 분야의 훈련과 취업알선, 훈련기간에 필요한 아동보호 및 교통편의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타깃그룹 : 빈곤율이 높은 취약한 PUMAs* 지역의 실직자나 비진한 청소년 등 취약계층
 - * PUMAs(Public Micro Data Areas) : 빈곤율이 15%가 넘는 지역으로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에 의해 지정됨.
- 사업 규모 : 1억 5천만 달러
- 신청 및 참여 기관
 - 참여기관은 아래의 두 가지 타입이며, 두 경우 모두 지역 community 수준에서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노사단체, 비영리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
 - 전국적인 비영리기관(NPO)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가진 경우
 -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지역 단위의 비영리기관

○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참가자들을 위한 채용 및 취업알선 전략 수립
- 녹색산업에 필요한 훈련과 취업에 필요한 어학 등 기본적인 훈련 제공
- 직업훈련과 아동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참가자들의 훈련을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제고

□ 심사 결과 및 사례 소개

심사 결과(총 450개의 신청기관 중) 38개의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당 2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까지 지원하였다²⁰⁾.

○ 개요

- 선정 기관(Grantee) : Worksystems, Inc.
- 사업 지역 : 오레곤주 Multnomah 카운티(빈곤율이 높은 PUMA지역)
- 중점 산업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빌딩 및 개보수, 환경보호, 농업 분야 등
- 타깃그룹 : 원주민 인디언, 흑인, 라틴계, 세대군인, 노숙자 등

○ 지원금 : 400만 달러

○ 참여 기관 (주요 파트너십)

- 건설도제제도 운영기관, 인디언, 라틴계, 교회 등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참여

○ 사업 내용

-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실직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 Green 분야의 훈련을 실시하여 학위와 수료증 취득 및 취업지원
- 훈련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노동조합, 산업계로부터 인증 받은 훈련기관을 통해 실시

○ 산출물(Proposed Outcomes)

- 동 사업을 통해 360명을 목표로 훈련실시 예정
- 이들 중 300명 이상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200명 이상이 학위 또는 수료증을 받을 예정. 그리고 180명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160명은 훈련받은 직종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예정)

20) 공고(2009. 6. 24), 접수 마감(2009. 9. 29), 선정 발표(2010. 1. 13)

5. 에너지파트너십 훈련보조금(State Energy Sector Partnership and Training grants)

동 사업의 특징은 산업별 전략(sector strategy)으로 주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인력개발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신청기관을 주의 인력개발을 종합하는 인력투자위원회(WIB)가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21세기 미국의 녹색경제 (green economy) 성장을 위해선 주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주정부의 에너지전략과 인력개발을 연계한 종합적인 Sector 전략이 필요

○ 사업 내용

- 주정부로 하여금 주 차원의 에너지정책, 인력개발정책, 지역에서의 훈련을 연계토록 함. 이를 통해 녹색산업 분야의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토록 함.
- 동 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주 차원의 에너지정책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됨.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녹색산업 분야의 인력개발 촉진에 기여.

○ 사업 규모 : 1억 9,000만 달러

* 동 사업 예산 중 25백만 달러는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영향을 받은 지역에 지원

○ 신청 기관 및 선정

- 신청 주체는 주정부 인력투자위원회.

* 그러나 주의 각종 교육 및 인력개발기관, 윈스토펜터, 대학, 지역인력투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신청토록 함.

○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주정부에 대한 에너지 전략 및 인력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녹색산업 분야의 훈련 및 고용증진 유도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력개발 등을 위한 파트너십 제고
- 저소득, 저숙련 근로자들의 녹색 기술습득과 녹색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고용 서비스 등의 통합시스템 구축

□ 심사 결과 및 사례 소개

심사 결과 총 34개의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당 200만 달러에서 최고 600만 달러까지 지원하였다.²¹⁾

○ 선정 개요

- 선정 기관(Grantee) : 알라바마 주 경제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Economic and Community Affairs, ADECA)

* 지역 : 자동차산업 피해지역 포함 (몽고메리 등 7개 카운티)

- 중점 산업 : 에너지효율 빌딩, 건설 및 개보수, 바이오, 에너지효율 측정 등

- 타깃그룹 : 제대군인, 취약청소년, 실직자, 재직자, 저소득층 등

○ 지원금 : 600만 달러

○ 참여기관 (주요 파트너십)²²⁾

- 주정부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주 경제부, 교육부, 주지사 인력개발실, 알라바마주 주택협의회 등)

○ 사업 내용

- 참여자들에 대해 에너지 관련 업종에서 인증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

- 보조금은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센터* 및 실험실 건립 등에 사용

* (Alabama Center for Renewable Energy Sector Training)

○ 산출물(Proposed Outcomes)

- 동 보조금 사업을 통해 3년간 1,442명을 훈련 예정

- 이들 중 1,250명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 예정. 또한 1,350명의 참가자가 학위나 수료증을 취득할 예정임. **KL**

21) 공고(2009. 6. 24), 접수 마감(2009. 10. 20), 선정 발표(2010. 1. 20)

22) Alabama Department of Economic and Community Affairs (ADECA), Governor's 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 (GOWD), Alabama Career Center System, Mobile Workforce Investment Board, Trenholm State Technical College, Alabama Department of Education, Alabama Homebuilders Association

참고문헌

- Heldrich Center (2009), “Preparing the Workforce for a Green Jobs Economy”, by Jennifer Cleary and Allison Kopicki, Feb. 2009.
- U.S. BLS(2010), “The Employment Situation – May 2010”, 2010, 6. 4
- _____ (2010), “Measuring Green Jobs”, <http://www.bls.gov/green/>
<http://www.bls.gov/bls/budget2010.htm>
- U.S. CEA (2010), “The ARRA and Clean Energy Transformation”, – Supplement to the Quarterly Report 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pril 2010,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U.S White House.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Measuring the Green Economy”,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 U.S. DOL(2010), “FY 2011 Budget in Brief” 2010, 2월
- _____ (2010), “ Solicitation of Grants, Green Jobs” <http://www07.grants.gov/search/agency.do>
- U.S, DOL, ETA “Green Jobs Framework”. <http://greenjobs.workforce3one.org/view/4010930953284969313/info>
- U.S. ETA, Green Jobs Webinar (2009), “Transcript of Webinar ETA and Green Jobs”, Jan, 7, 2009 Transcript by Federal News Service Washington, D.C.